

## 사업체계 확립으로 협회 위상제고 급선무 포장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것이 가장 중요

공재홍 / (사)한국포장협회 상근상무이사

**1991년** 한국연포장협의회로 출  
발해 근 6년여 동안 한국  
포장산업을 대변해 온 (사)한국포장협회가 지난 4  
월1일, 상근 상무이사로 공재홍 전 한국포장산업  
연구소의 소장을 맞아 활기찬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의 상무이사로 오면서 하고싶은  
일도 많았지만 와서 보니 해야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회장님과 이사진들과  
의 논의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며 성실하게 이  
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임 상근 상무이사로서의  
소감을 밝히는 공재홍 상무이사는 고려대학교에  
서 미생물학을 전공할 당시부터 식품계통쪽에 관  
심이 많았다고 한다. 졸업후 산업디자인포장개발  
원의 전신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입사하면서부  
터 식품포장분야를 연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껏 포장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

포장산업 자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산업이 아니라 합성수지, 제지, 금속, 병, 목  
재 등 특성이 다른 이질적인 각각의 산업을 총괄하  
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이  
로 인해 그 규모만큼 커다란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것을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공 상무는 “현  
재 포장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비중있는 분야로 인  
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든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급속



▲ 공재홍 (사)한국포장협회 상근상무이사

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으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고 지원대책을 끌  
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내  
어오기 위해 협회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말  
했다.

우선 포장은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해 왔고,  
모든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  
과정을 일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며, 아무  
리 좋은 상품이라도 포장이 없이는 한치의 유통도  
불가능하다. 근래에 와서는 환경, 폐기물처리 등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상되면서 포장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가격 경쟁분야 임  
에도 정부당국이나 지도기관의 정책입안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국내 포장산업의 규모가 6조원 이상(GNP의 2%)이라지만 부대산업까지 합하면 10조원 이상이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사실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분야라는 것을 이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당면과제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공 상무는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포장산업관련 단체들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분야별 대표체들과 협의해 포장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연합회의 형식이 가장 이상적이라 했다. 이를 위해 많은 사전조사작업과 각 업계들의 충분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한국포장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꼽았다.

“국내 포장산업이 그 규모만큼이나 체계적이고 영향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소리의 취합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포장협회가 할 일인데, 저는 저희 회장님과 이사진과의 의의를 통해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펼쳐면서 그 기반을 닦고자 합니다”라는 공 상무는 포장협회의 회원사들에게 고무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회원사의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월간 포장정보’의 출판에만 국한되었던 진흥사업을 연구·전시·교육 등의 분야로 확대하면서 좀더 폭넓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한 각국의 포장관련단체들과의 국제교류에 적극성을 가지고 포장업계의 대정부 창구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체로서의 (사)한국포장협회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해 그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20년간 포장산업에 종사하면서 건조식품의 Shelf-Life를 MIT로부터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여 주목받았던 일과 제 1회 서울팩 개최를 주도적

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루어냈을 때를 큰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공 상무는 이 외에도 군수품 포장의 기획에 참가해 이를 완전 국산화하고 농·수산물의 포장규격을 정식으로 제정한 연구결과가 채택되어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등 업계의 진일보에 많은 기여를 해온 바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포장산업에 종사하게 됐음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공 상무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포장산업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주어진 시간내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 내는 것에 고충이 좀 따를 뿐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부인과 군을 제대하고 대학3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이제 대학 졸업반인 딸이 꾸민 단란한 가정의 가장인 공 상무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힘있는 추진력을 가진 동시에 조직 생활에 있어서 융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무형으로, 앞으로 협회는 물론 포장산업 전반의 일체된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회의 상무이사로서 협회 회원사의 공동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공 상무는 각 업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와 더불어 협회의 노력으로 포장산업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면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침체되었던 국내 포장업계가 (사)한국포장협회의 젊고 새로운 출발처럼 다시 새 생명력을 얻고 업계전반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K]